

작가의 길 굽어보며 문학과 조우

장흥 출신 작가들 작품 배경 그림·사진·영상으로... '장흥 문학길' 출간

‘문림(文林) 장흥은 문학계의 별들을 많이 배출한 문향을 의미한다.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작가와 위선환, 김영남, 이대흠 시인의 고향이 바로 장흥이다.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문학적 뿌리도 이곳이다.

그뿐 아니라 장흥은 조선조에 가사문학과 한시학이 활짝 개화했던 고을이다. ‘관서별곡’의 기봉 백광홍 선생을 비롯해 옥봉 백광훈, 정사 노명선, 존재 위백규의 뗏자리가 장흥이다.

장흥은 지난 2008년 국내 최초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09년에는 전국 문학인대회를 개최했다. 비단 인적 자원뿐 아니라 자연 자원도 문림의 명성을 뒷받침한다. ‘서편제’, ‘축제’, ‘천년화’ 등 문학작품을 영화화한 영화 촬영지와 천관산 문학공원, 한승원 문학산책로와 해산토굴, 이청준 생가 등 문학 자원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이러한 문학 자원의 원조적 토대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길’이다. 길은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준다. 시간과 사람, 역사와 문화를 매개하는 길은 오늘의 문명을 낳은 근원적인 모티브다.

장흥 출신 문인들의 작품과 그 배경이 되었던 길, 공간을 그림과 사진, 영상으로 형상화한 ‘장흥문학길’(사계절)이 발간됐다.

저자는 이청준(1939~2008),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위선환, 김영남, 이대흠 등 7명의 문인들과 김선두, 이인, 김범석, 장현주, 서용, 안국주, 박문중, 정정엽, 박정아, 박수만, 김지원, 황재형, 박진, 주호석, 유영호, 윤광준 안정주, 홍이현숙 등 18명의 작가들이다.

책은 장흥문화원과 복합문화공간 ‘예무’가 기획한 ‘장흥문학길’ 축제의 ‘옛길, 새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인들(장흥출신)의 글과 작품 배경을 화가와 사진가들의 작품으로 형상화해 책으로 엮어내기로 한 것이다.



송기숙 故 이청준

작업은 4월에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이 장흥에 모여, 작품의 무대가 되는 공간을 방문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이청준 작가의 절친한 친구인 김선두 화가는 “이번 기획은 장흥의 옛길과 새길 위에서 미술과 사진, 영상 등이 문학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흥 전체 문학지도 한 점과 세부 문학지도 일곱 점은 김선두 작가가 직접 그렸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옛길을 걷는 것은 잊어 버린 기억을 회복하는 일이고 잃어버린 관계망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이는 지역성을 살리며, 가치의 확실성을 높고, 다양성을 획득하고, 통합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세대 간을 비롯한 문화 격차가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이청준 소설 ‘눈길’을 형상화한 김선두 화가의 ‘눈길’이다. 소설 ‘눈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려버린 고향 집을 방문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하루 동안 그 집을 빌린다는 내용이다.

이튿날, 밤새 내린 눈으로 세하얇게 변한 눈길을 걸으며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독백은 절절하다. 장지에 먹으로 형상화한 그림에서는 원 텍스트가 주는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 온다.

한승원 작가의 고향집 앞바다에 펼쳐진 풍광을 형상화한 그림도 있다. 황재형 작가가 그린 ‘장흥 갯바람’에서는 갯바람 특유의 생명력과 바람의 역동성이 현장감 있게 표현돼 있다. 집 마루 앞까지 들이치던 파도에 막막했다는 이승우 작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려낸 방정아 작가의 ‘물이 밀려들곤 하던 집’과 어느 선술집에서 이대흠 작가의 추임새에 맞춰 그려낸 박문중 화가의 ‘장흥 주회도’도 눈길을 끈다. 위선환 시인의 ‘탐진강’ 연작을 황토와 마, 석재로 형상화한 김범석 작가의 ‘탐진강13’은 특유의 질감과 어두운 색감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책에는 7명의 문인 중 막내 격인 이대흠 시인이 선배 문인들을 짝지만 강렬한 어조로 호출해낸 글들도 담겨 있다. 그는 이청준의 소설은 담육 없는 흰색 같고, 한승원의 소설은 태

양처럼 타오르는 정열의 붉은색이며, 송기숙의 소설은 다채로운 인간들이 모여 이루는 대동세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검은색이라고 평한다.

김영남 시인은 ‘내 시의 원천 또는 창작의 길에서’라는 글에서 “나는 이 길을 오가며 많은 상념에 잠겨곤 했다. 집을 나설 땀 이 길 위에서 꿈을 펼쳤고, 돌아올 땀 고향의 풍광과 풍물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내 문학적 감수성은 여기에서 싹트고 성숙해졌다”고 회고한다.

한편 책 발간을 기념해 수록된 그림과 사진, 영상 등의 전시회가 이달 말까지 장흥 우드랜드 앞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010-3375-656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선두 '눈길'



김범석 '탐진강'

눈길·장흥 갯바람 등 장지에 형상화한 그림 ‘글의 감동 그대로’ 한승원·위선환 등 작가 18명 참여...우드랜드 이달까지 기념전

‘우리 소리’ 들으며 한옥에서 운치 있는 밤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 7·14일 무형문화재 ‘혼의 소리’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꾸미는 국악 한마당.’

(사)한국전통문화연구원(회장 황승욱)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하는 일요상설 공연 무대에 선다. 7일과 14일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열리는 공연 주제는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혼의 소리’다.

7일에는 동조제 춘향가 예능보유자 방성춘(전주대사습 대통령상 수상) 명창과 전수 조교인 박미정씨가 판소리 입체창 및 가야금 병창극 ‘춘향’을 선보인다.

‘수궁가 중’ 토끼화상 그리는 대목~세상 나오는 대목인 ‘고고천변’을 입체창으로 들려준다. 또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문명자(제10회 고령 우륵 가야금대회 대통령상) 명창이 도장으로 출연해 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단원들과 함께 ‘춘향가’ 중 ‘단오늘이’ ‘사랑가’ ‘숙대머리’ 등을 ‘가야금 병창극’으로 꾸며 선보인다.

14일 공연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황승욱(제33회 경주 신라문화제 국악대제전 대통령상)씨가 가야금 병창으로 ‘심청가’ 중 ‘심청후와 심봉사 맹인 잔치 상봉 부분’, ‘새타령’, ‘흥타령’, ‘사철가’를 들려주며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예능보유자 이순자(제22회 전국판소리명창 경연대회 대통령상)씨는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 상봉 장면’을 단막 창극으로 선보인다.

전통문화관은 그동안 오후 3시 솟을대문 앞에서 선보였던 일요상설공연을 8월 한 달



방성춘



문명자

동안 오후 7시 30분 야의 너털마당으로 옮겨 진행한다. 한낮 무더위를 피해 한옥과 자연 속에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무엇보다 아시아문화포럼, ASEM문화장관회의 등의 만난 및 공연 장소로 각광받은 전통문화관의 밤 운치를 시민들에게도 선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요 상설 공연과 함께 열리는 ‘로드마켓’은 시간 변동 없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솟을대문 앞 도로변에서 수공예품·수제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20여 개 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 관람. 우천시에는 전통문화관 서석담에서 개최된다.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



황재형 '장흥 갯바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녀조각 앙코르 전시회

제2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6년 8월 15일(월)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 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보훈청